

# ‘선생님, 접니다’



**김준형**  
청평과니

“센세이, 와타시데스. 아노 ‘다이주’데 스요.”(선생님, 접니다. 대중입니다) 1998년 10월 7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상고 시절 담임 선생님이셨던 ‘무쿠모토 이사부로’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한 말이다.

당시 한일 관계는 험악했다. 일본에서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강경대응했다. 양국 국민들의 감정의 골도 깊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먼저 은사님께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통령을 배려해서, 무쿠모토 선생님을 영빈관으로 모셔왔다. 이 때 대통령도 70이 넘는 나이였지만, 선생님 앞에서는 웃음을 가득 띤 채 천진난만한 학생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 모습은 일본 방송에 그대로 송출되었다. 그리고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사제 간의 정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도 녹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로 기억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이렇듯 사제지간의 정이란 것은 보통의 인간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감정이다. 일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그들에게도 스승이 있고, 애뜻한 감정이 있을 것이다. 은사님을 찾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깊은 동질감을 느꼈으리라. 이런 동질감이 역사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스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선생님들은 이를 악물고 교단을 지켰지만, 이제는 한계다. 얼마 전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터졌고,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몇몇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비보가 이어졌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법과 제도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과 제자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특히 추모집회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아동학대 처벌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정

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만 하면, 선생님을 교육현장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악용해서,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며 선생님을 정서학대로 고발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께서는 ‘누구나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세월은 흘렀고, 이제는 제자들이 장년층이 되었다. 살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사는 것은 이리도 힘들까? 그리고 우리 세대가 만든 세상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열심히 살면, 성공하는 세상’일까?

누구나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한분쯤은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우리 아이들이 나의 은사님처럼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기를 기원한다. 존경하는 은사님들의 가르침은 평생을 지탱해주는 마음의 기둥이 된다. 이런 기둥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스승에 대한 신뢰와 존경에 의해서만 만들어 질 수 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학생은 스승의 등을 보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 무심코 던진 돌과 개구리



**김정산**  
(금융부)

6년 전 보행자도로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한 곳에서 운행 중인 경차에 무릎이 스쳤다. 다치지지는 않았다. 주변 친구들은 사건을 접수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사건 접수를 만류했다. 보험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십여년 만에 친구를 만났다. 그는 한 보험대리점(GA)에서 수년째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 안부를 묻고 시간이 조금 지났다. 대화 소재가 고갈되자 분위기가 무거웠다. 언젠가 GA사의 불법 영업에 관해 물었다. 생각보다 허심탄회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불법영업을 단행한 설계사 중 적발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자신했다. 가입자가 설계사와 큰 마찰을 빚지 않는 이상 금융감독원에 애써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며 불법영업에 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구리를 죽인 꼬마에게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맞는 비유인가가우뚱했다. 마지막에는 꼭 맞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금감원 내 보험영업감사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GA사의 불법 영업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대리 서명을 시작으로 리베이트 성격의 사은품까지 다양하다.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허위 서류로 심사를 통과했다. 그중에는 생소한 회사도 있지만 이름만 말하면 알법한 GA까지 있다.

가입 당시에는 서로에게 이득인 것처럼 느껴진다. 같은 값의 식당이라면 아는 사람 영업점에서는 음료수 한 병이라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심리다. 그러나 보험은 금융상품이다. 돌고 돌아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해당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 둔다면 보험금 지급 등 서비스 혜택에 차질을 빚을 여지도 존재한다.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부작용을 낳는다.

불법영업의 대가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전부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후 불법 영업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장담하기 어렵다. 솜방망이 처벌은 나쁜 선례를 쌓고 있는 격이다. 모르는 사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지 모른다. 한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유행했다. 이 말을 다시 곱씹어야 할 때다. /kimsan119@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3일 (음 7월 29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무지가 지식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한다. 48년생 주변에 사생활이 많으니 주의. 60년생 자신감은 내면에서 온다. 72년생 보석이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을 모른다. 84년생 어제의 경쟁자가 동지가 될 수도.
- 소** 37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49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지치고 힘이 드는 하루. 6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다. 73년생 내가 놓은 땀에 내가 걸린다. 85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다.
- 호랑이** 38년생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롭다. 5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62년생 기쁨과 근심은 종이 한 장 차이나니 마음먹기 나름. 74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면 된다. 86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잘 살펴라.
- 토끼** 39년생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5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라. 63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박약을 챙겨라. 75년생 원숭이따가 어려운 일을 도와줘 쉽게 해결. 87년생 걸 다르고 속 다름 게 뜻이 있다.
- 용** 40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날. 52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도 방법. 64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웃지 않는다. 76년생 좋은 일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라. 88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주변을 살피라.
- 뱀** 41년생 때로는 내용보다 포장에 중요. 53년생 비가 와도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우산이 필요 없다. 65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 해 열매이다. 77년생 상대를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89년생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라.
- 말** 42년생 재물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는 것을 명심. 54년생 적당한 경쟁이 발전의 요소. 66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먼저. 78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면 보답을 받는다. 90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 양** 43년생 생각하지 못한 일로 심신이 고달프 하루. 55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하라. 67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79년생 행운에 마음이 기쁘나 복병이 있다. 91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운 좋은 날.
- 원숭이** 44년생 가는 사람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 56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라. 68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 80년생 이성 약속에서 약속이 걸릴 수 있으니 주의. 92년생 현실이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면 만족해야 한다.
- 닭** 45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외부 기준에 두지말라. 57년생 표리부동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69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81년생 된다 하면 정말로 이루어지니 신념이 중요. 93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날.
- 개** 46년생 돌아갈 수 없기에 지난날이 더 생각난다. 58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라. 70년생 희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 82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94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를 가져라.
- 돼지** 47년생 정서적 지지와 배려가 상대에게 큰 힘을 준다. 59년생 슬픔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뜻을 이룰 수 있다. 71년생 우는 아이는 달래야 하지 않을까. 83년생 떠벌리기 보다는 침묵도 지혜. 95년생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말을 인식할 것.



## 김상회의四季 철성기도

어머니 할머니들에게 철성기도는 삼백육십오일 항상 진행형이지 않을까 싶다. 철성신은 북두칠성을 의미한다. 철성신들은 수명 건강 자손의 점지와 창성을 기원할 때 강력한 효험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필자가 주석하는 작은 암자인 월광사의 오랜 신도인 P여사는 철성기도에 대해서 진심이다. 남편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녀 역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라 항상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스러운 터였기에 남편이 해외에 나가기 시작한 그 때부터 철성기도가 생활화된 것이다. 그녀의 철성기도는 이와 같다.

철성기도의 모태가 되는 ‘북두칠성명경경北斗七星延命經’에 보면 철성님들이 달마다 하강하는 날 일마다 하강하는 날과 함께 철성기도를 올리는 날 등이 적혀 있다. 일테면 북두칠성이 일마다 하강하는 날에 대해서는 정월의 경우 정월 초사흘 초이레 초여드레 보름 이십이일 이십육일 이십칠일 등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 이런 날 새벽에는 반드시 북두명경 약본과 함께 북두주를 읊으며 기도와 발원을 한다. 물론 철성님께 달마다 예배하는 날이라 하여 매일 마다 해당 일에는 기도 과정에 약본이 아닌 북두명경 전문을 독송하는 식이다.

기도발원을 올리는 날마다 장독대는 아니더라도 책상 위에 물 한 잔 올리고 천원씩 놓는다. 철성기도는 특히 먼 길 떠나 있는 가족의 안위를 위한 맞춤형(?)기도라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연구로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예로부터 자손의 점지를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먼 길 떠난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 무사귀환을 위해 정성스런 기도를 올린 것이다. 올해 칠월칠석에는 부슬비 대신 소낙비가 내렸다. 칠월칠석날의 비 내리는 전통은 올해도 증명되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7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5시** **문제출제: 손호성**

4X3 �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슄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자극하는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슄도쿠65 | 10,000원

**정답**

2	5		3	4	
	4	9			2
	5				9
3	2		1		
5	6			1	3
		8		6	5
7				9	
8			4	9	
	5	9	1	8	

	8	9	3		7
4					5 3
3		4	7		
4	2				
8	9		6	5	7
				1	2
			9	7	
6	9				2
8			4	1	9

간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